어르신 복지증진 시책 확대

순창군, 노인복지예산 347억원 편성… 마을경로당 급식도우미 등

순창군이 지역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돕기 위해 복지증진 시책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군은 내년도 노인복지 예산으로 전년대비 38억원이 증가한 347억원을 편성해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먼저 마을경로당 급식도우미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경로당 이용률이 높은 동절기 4개월만 추진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농사일이 바쁜 농번기에도 2개월을 더 확대해 일손 부족 해소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월 20일간 총 6개월 운영되는 급식도우미 사업은 노인들에게 점심 부담을 덜고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잡는 성과를 거둘 전망이다.

군은 또 경로당 보수와 지원사업에도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무더운 여름에 시달리는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내년에 직립형 에어컨을 신규로 80대 보급하고, 연차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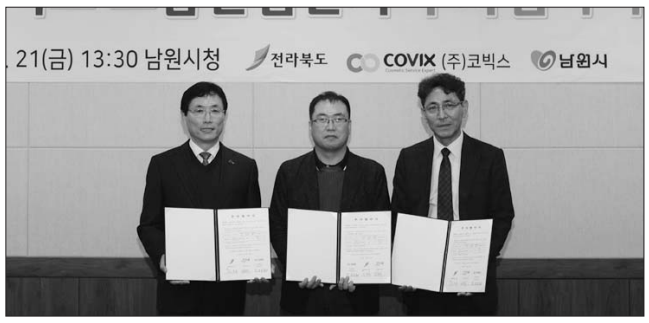
지난 12월 순창군 조례를 제정해 3개월 이상 근속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매월 2만원씩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도 더욱 확대한다. 지역환경개선사업, 내고을안전지킴이 등 공익형 17개사업, 쌈채소, 표고버섯, 삼채 등 시장형사업단을 연간 9~12개월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또 65세이상 소득하위 70% 이하인 노인에게 매월 최대 2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당장 내년 4월에는 소득하위 20% 이내 노인들에게 월30만원으로 전격 인상해 지급한다.

군민화장 장려금은 도내 이용료 100%를 지원키로 했다. 군민들의 화장 장려와 화장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순창군 조례를 개정, 종전 1구당 25만원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전라북도내 화장시설을 이용하면 실비로 100%를 지원하고, 그 외 타지역은 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군 외에도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에서는 8개월 24강좌이던 노인대학을 1개월 4강좌 증설한 9개월 28강좌로 늘려 노인들의 학습의욕을 채워줄 전망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코빅스, 남원 노암산업단지 300억 투자



남원시는 지난 21일 코빅스와 300억원 상당의 투자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지난 21일 화장품원료개발과 판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주)코빅스와 300억원 상당의 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환주 남원시장, 김종회 ㈜코빅스 대표, 차주호 전북도 투자유치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코빅스는 노암산업단지(3지구) 부지 30,450㎡에 총 300억원을 투자해, 2020년 상반기까지 기초화장품 및 헤어관련 제품 생산시설을 구축기로 했다. 또, 2021년까지 색조화장품 설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코빅스는 2007년 법인을 설립해 화장품 원료개발 및 판매로 꾸준한 성장을 이어오고 있으며, 남원투자로 원료개발에서 화장품 생산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 연간 2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는 목표로, 신규 고용창출도 150여명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코빅스는 생산시설 건설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 사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코빅스 김종회 대표는 "이번 투자를 토대로 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남원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기업의 강점인 원료추출 기술력으로 남원시 화장품 산업발전에 보탬이 되는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환주 시장은 "수도권인 경기도에서 남원시로 기업 이전을 결정해 준 김종회 대표께 감사드린다며, 남원시가 중점적으로 조성 중인 화장품 지원시설들을 활용, 입주부터 기업의 성장까지 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남원시 노암동 일원에 2015년 준공된 20만8,423㎡ 규모의 노암산업단지(3지구)는 산업시설 용지 총 25필지 중 14필지에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2018년 한해 코빅스와 더불어 총 5개 기업을 유치하는 등 분양에 순항을 보이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백두대간생태교육장 겨울방학 특별 전시

남원시는 오는 29일부터 2018겨울방학특별기획 '게판5분展'을 운봉읍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특별전에는 다양한 게와 가재, 새우 등 약 국내외 50종 2000여 마리의 아름답고 신비한 갑각류가 전시되며, 게와 가제 등을 만져 보는 체험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게들의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게와 닮은 가재 새우 등을 함께 전시해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지리산 지역의 맑은 계곡에 서식하는 가재, 징거미새우 등 백두대간 속 갑각류의 생태전시를 통해 백두대간 보호와 보전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가족단위 관람객이 가장 좋아하는 체험프로그램에는 갑각류의 생활습성을 이용한 '갑각류생태낚시'와 아이들의 정서와 오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 '해양생물터치풀', 언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모래놀이' 등이 마련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7시 30분까지며(매주 월요일, 설날 당일은 휴관) 전시관 입장객은 추가비용 없이 관람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장애인연합회는 장애극복사례 모음집 발간식을 열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

순창군장애인연합회, 장애극복사례 첫 모음집

순창군장애인연합회(회장 장병주)가 장애극복사례 첫 모음집 '아름다운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발행해 화제다.

지난 21일 순창읍 노인회관에서 열린 송년회겸 발간식에서 연합회 소속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발간식에서 필자인 이강택(57, 팔덕면)씨를 비롯해 4명의 사례발표가 이어졌으며, 발표하는 동안 참석자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켜 눈시울을 붉게 만드는 광경도 연출했다. 이번에 발행된 모음집에는 시각장애인 김정기씨(71, 적성 평남)의 '모진 가난 극복 곁지킨 아내가 은인' 등 저소득 장애 가정 위기 극복 스토리 13편을 담았다. 특히 시각장애인 1급인 최금례씨(59, 적성 임동)는 선천적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목회자로 키웠으며, 50세가 넘어서 검정고시에 도전해 초 중등과정을 통과해 주위의 찬사를 받았다.

순창군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한 장애극복사례 모음집을 읍·면사무소, 장애인단체,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및 관련 기관 등에 배부해 위기에 처한 장애인 가구의 극복 경험을 공유하겠다"며 "희망을 전하기 위한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은 임실상성문화마을의 성과공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임실상성문화마을 성과 공유회 성료

임실군은 문화특화지역(문화마을) 조성사업에 선정된 임실상성문화마을의 1년차 사업을 마무리하는 성과공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20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되어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총 6억원이 투입되며, 임실읍 성가리 상성마을 주민공동체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추진된다. 임실상성문화마을추진단을 주축으로 건축과 공간재생, 공동체 문화기획 그룹인 '일상문화연구소 스페이스모'와 함께 추진하며 생활문화와 예술문화, 문화교류, 공간문화, 마을미디어, 주민역량강화 등 총 6개 분야로 구성됐다.

최성일 대표는 "올해 진행되었던 사업 성과보고, 전시 및 상영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며 한해를 되짚어 보는 자리가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심민 임실군수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상성마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상성마을이 임실군을 대표하고 으뜸 문화마을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메아리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일자리 활성화 기여

서부지방산림청은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2018 산림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그동안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라는 슬로건 아래 사람 중심의 산림순환경제로 2022년까지 공공일자리, 사회서비스일자리, 지역산업일자리, 직접일자리, 사회적경제·창업일자리, 전문일자리 등 6개 유형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노력해 왔다.

서부청과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재해일자리사업과 산림서비스일자리 등으로 368명을 고용하고, 청년층·장년층·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로 명시해 참여 목표비율에 맞춰 고용함에 따라 특정계층에 취우치지 않게 선발했다.

또한 산림서비스일자리를 통해 유아·청소년·청년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8400건 25만명에게 숲 체험 등 산림휴양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산림문화를 정립 하는데 기여했다.

서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을 모두 아울러 숲에서 즐기고 체험하며 자연과 함께하는 산촌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남원시보건소 (소장 이순례)는 2019년부터 기존 시행중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은 여성연령만 44세이하 가정이며, 당초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자로 확대되고, 지원 횟수는 기존 4회에서 10회로 확대 지원된다.

또한 지원항목으로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만 지원되던 것이 일부본인부담금까지 포함되어 1회 최대한도 50만원 이내 지원되고, 시술방법은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3회, 인공수정 3회이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620-7942)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